

靑 “우리가 뭘 더해야 하나”...한국당 제안 거부

靑-여야 대표 회동 형식 놓고 한국당 기존 입장 고수 대통령 순방전 회동 희박...與, 6월 국회 단독 소집 고심

여야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동 형식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청와대 회동이 성사될 경우 경색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동 형식을 둘러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기싸움이 워낙 팽팽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와대가 9일 북유럽 순방을 시작하는 문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해 회동 날짜를 7일로 제시했으나 그 전에 접점 찾기가 어려워 순방 전 회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이후 ‘대통령-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대일 회담’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참석 범위를 ‘교섭단체 3당’으로 제한하자는 한국당의 역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는 어제 밝힌 대로 5당 대표와의 회동과 일대일 회담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까지 했다”며 “청와대는 어찌할 야당의 제안에 융통성을 계속 발휘했다. 여기서 뭘 더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이 제시한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후 일대일 회담’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나머지 2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빼고 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여야 회동이 성사되지 않는 책임을 청와대에 돌

리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화가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리고 나서 제1야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며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우리 당은 즉각 국회를 들어가서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한발 양보한 청와대의 여야 대표 회동 제안을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회동 제안에 역제안으로 나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황 대표의 무례하고 독선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한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은 쉽지 않겠다”

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한국당이 요구한 일대일 회동을 수용했는데 나머지 당 대표 회동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후속 대책에 대해선 ‘합의처리 원칙’으로 한 발 물러났음에도 한국당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거듭 압박하는 한편, 이번주를 넘길 경우 단독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대해 100% 전적으로 사과하고, 법안들을 100% 철회하라는 얘기를 너무 경직되게 요구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국회를 손 놓고 있을 것이냐는 지적이 있어서 고민이 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이해찬, 두번째 릴레이 오찬

외교·안보장관과 헝가리 사고·대북식량지원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릴레이 오찬’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한미정상회담, 대북 식량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최근 헝가리를 다녀온 강경화 장관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 관련 내용과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정상외교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김연철 장관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군을 중심으로 당국은 접경지역을 통해 남측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바람 잘 날 없는 ‘바른미래’

이찬열 ‘양아치’ 발언...劉계 “중징계” vs 孫 ‘감싸기’

바른미래당이 5일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 이찬열 의원의 ‘양아치’ 발언 의혹을 놓고 ‘막장 총돌’을 빚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며 거세게 들고 일어났지만, 손 대표가 이 의원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양측 공방이 한층 격화할 태세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이 이해준 의원과 공방을 주고받은 뒤 의총장을 나서면서 ‘양아치’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여성비하”라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3선 의원, 그것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이런 비교육적이고 막말 발언을 하는 것이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권 최고위원은

“(손 대표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 막말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이인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향해 발언한) ‘찌질이’가 당원권 정지 1년 이면 양아치는 그 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계 지상욱 의원도 “이 의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감싸기’에 나섰다.

손 대표는 “이 의원과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 나오면서 보좌관하고 ‘양아치 같네’라고 얘기했는데,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든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문체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여야 4당 “정개특위 시한연장 안되면 이달중 선거법 의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 한국당 “국회 개의 전 안돼” 1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심의·의결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개특위의 개의를 보류해달라며 이에 반대했다.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개특위에 주어진 소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법개정안 관련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이관된다”며 “이는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대한 배신이자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가 이달 중 선거법개정안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도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될 경우, 정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 회의가 열리기 앞서 한국당과의 합의를 무기한 회피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 내 심의·의결 일정도 이에 맞춰 이달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날 1소위 정회 후 진행된 여야 간사 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후 폭풍과 향후 정개특위 운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한국당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개특위 1소위의 개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정개특위 연장이 확실시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는 선거법개정안의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정개특위 1소위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다음 주부터 선거법개정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정개특위 회의를

강행할 예정이다.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열린 1소위 회의에서도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대 한국당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펼쳐졌다.

한편, 사법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처음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오는 10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 딸 해외 이주, 공익감사 사안 아냐”

감사원, 감사계획 철회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5일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 1759명은 지난 3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금액 인데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한 경우 등

이다. 또한 ▲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문위원회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다혜 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 관계이므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삿짐 수출신고서와 해외재산 반출 규모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의무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임야 단독심

- ▶ 바로삽니다
- ▶ 지분물건 환영
-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지

- 광산구 장수동 담 자연녹지 마을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을 동사리 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 임야 11만㎡ 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경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해남 산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감정가 50% 매11억
- 강진 성전면 상업 준 2중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점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 도로 점 매 4억3천

상가

- 백운동 2층 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 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 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132㎡ 보2500만 월160만 포함 안집제의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아파트 1층 상가 대로점 330㎡ 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을 종교지, 전, 임야 1만㎡ 사찰건물최고 납골당 4 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순 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델4층, 2층식당 펜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와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올리모델링 매 1억4천만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중4층 엘리베이터 방2 거실큰 전세8천만원포함 매1억3천만
- 월산동 우방아이유셀 115㎡, 9층, 매3억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